

한국어 연결어미 ‘-느라고’의 특성과 기술 방안

— 한국어교재 및 사전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박종호*

|| 차례 ||

- I. 서론
- II. ‘-느라고’의 기술 및 의미 관계 양상 분석
- III. ‘-느라고’의 특성 및 기술 내용 제시
- IV. 결론

【 】

이 연구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사전류에 제시되어 있는 문법 항목 중 연결어미 ‘-느라고’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술 내용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법 항목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 문법서, 사전 등에 나타나 있는 문법 항목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느라고’를 대상으로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 사전의 기술들을 정리하고,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를 세분화한 후 문법 제약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결어미 ‘-느라고’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연결어미 ‘-느라고’, 문법사전, 문법제약, 사전 기술

*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전담 조교수

I. 서론

이 연구는 그간 연결어미 ‘-느라고’가 그 본연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있던 연구에서 확장하여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느라고’를 교수·학습할 때 활용하는 교재 및 사전 등에 나타난 항목의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재 및 사전 등에서의 연결어미 ‘-느라고’ 기술 형식을 개선하고 교육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내용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의 특징 중 하나인 연결어미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없는 문법 요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도 다양한 사용 예를 들어서 연결어미를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쓰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유사한 연결어미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개별 연결어미의 정확한 쓰임을 모두 교수·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는 연결어미와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현재까지도 교육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연구의 대상인 ‘-느라고’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우선 김명희(1980)에서는 ‘-느라고’를 이유를 나타내는 데 쓰는 연결어임을 밝히고 이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숙(1985)에서는 ‘-느라고’가 ‘-느’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동작의 진행상을 나타내고, 동작의 진행상을 가질 수 있는 서술어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주어 일치, 명령문과 청유문 제약, 시상 접사와 통합될 수 없는 점, 후행절이 선행절 동작의 배경이 되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이영숙(1989)에서는 ‘-느라고’를 여러 자질에 따른 선택 제한으로 세분화하여 통사적 제약을 다루었으며, 이키하라 고이치

(2001)에서는 시간 순서인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택시스(taxis)’를 기반으로 연결어미 ‘-느라고’를 [동시], [후속], [동시(일환)]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안주호(2007)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느라고’의 의미를 [의도, 목적], [동시], [원인, 이유] 등으로 나누고 선·후행절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 의미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느라고’의 통사적 특징으로 주어일치 제약, 서법제약,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 시상제약, 부정 제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가리(2013)에서는 ‘-느라고’의 통사적 특징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의미에 따라 ‘-느라고’의 주어 제약과 후행 문장의 의미 제약에 대해 밝혔다. 김순저(2014)에서는 ‘-느라고’를 ‘원인, 이유’, ‘의도, 목적’, ‘전조, 징후’ 등의 의미별로 분류한 후에 화용적 특징과 선후행절의 시간대 관계에 대해 밝히고, 주어제약, 서술어제약, 시상제약, 서법제약 등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덕(2014)에서는 ‘-느라고’의 특징을 논문과 문법서를 기반으로 정리하고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다른 연결어미들과의 비교를 통해 의미기능과 용법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¹⁾

그동안 ‘-느라고’의 국어학적 논의는 많았으나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그 수가 적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느라고’를 교육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결어미 ‘-느라고’를 대상으로 사전류와 문법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고, 현행 한국어교육에 사용되는 한국어교재에서는 ‘-느라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²⁾ 또한 말뭉치 용례를 통해 실제 언어

1) ‘-느라고’의 최근 연구를 보면, 진정란(2005), 김옥자(2007), 백낙천(2012), 김경화·김정남(2012) 등은 유사 의미를 갖는 다른 문법 항목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성을 밝혔다.

2) 한국어교재는 교육기관의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는데,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휘, 문법 등의 학습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매개체이다. 특히 교재 내에 있는 문법 요소에 관한 내용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언어 정보를 주는 직접적인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

생활에서 ‘-느라고’ 사용은 어떤 의미 관계 양상을 보이는지, 또 고빈도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³⁾ 이를 기반으로 각 의미별 특성을 살펴서 한국어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느라고’의 기술 및 의미 관계 양상 분석

1. ‘-느라고’의 기술

1) 한국어 교재에서의 ‘-느라고’

연결어미 ‘-느라고’를 기존 대학 기관 한국어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각 교재의 항목 제시, 설명, 용례 등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기존의 교수-학습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내용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⁴⁾ 다음은 각 대학 기관의 교재에서 ‘-느라고’의 기술을 정리해 표로 나타낸 것이다.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3) 이 연구에서는 ‘-느라고’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뭉치 용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말뭉치 용례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의 말뭉치 찾기에서 ‘-느라고’의 검색을 통해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 4) ‘-느라고’는 한국어교육에서 중급 단계에 출현하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중급 교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느라고’의 기술을 분석·정리하기 위해 사용된 교재는 서울대학교의 『한국어3』,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 한국어 3-2』, 서강대학교의 『서강 한국어 3B』, 경희대학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1』,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3』 등이다. 5개 대학의 교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대학 기관에서 가장 사용도가 높은 교재로 판단되었으며, 출판 시기 또한 기타 한국어교재에 비해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5개 기관의 교재를 대상으로 각 교재의 문법 항목 제시 부분과 설명, ‘-느라고’가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고, 이후 교재의 명칭은 편의상 ‘고려대 교재’처럼 간단하게 나타내겠다.

표 1. 대학기관 한국어교재에서의 ‘-느라고’

대학	항목 제시	설명	용례
서울대 교재	V-느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 못한 일,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그 행동을 하는 데 일정 시간이 요구 되는 동사와 결합한다. - ‘-았/었’, ‘-겠-’ 등과 결합하지 않고, 후행절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바쁘다, 힘들다, 정신없다’ 등과 주로 결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젯밤에 <u>숙제하느라고</u> 잠을 못 자서 그래요. · 병원에 <u>가느라고</u> 회사에 못 갔어요. · 음악을 <u>듣느라고</u> 전화를 못 받았어요. · 케이크를 <u>만드느라고</u> 쉬지 못했어요. · 요즘 유학을 <u>준비하느라고</u> 바빠요. · 일을 <u>하느라고</u> 잠을 못 잤어요. · 친구가 <u>이사하느라고</u> 바빠요.
이화여 대교재	V+느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때 계속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임을 나타냄. - 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핑계나 이유를 말할 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u>듣느라고</u> 전화 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서강대 교재	-느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 사용. ‘-느라고’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할 때 종종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 내일 시험이 있어서 <u>공부하느라고</u> 못 했어. ·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 한스 씨는 일요일에도 <u>일하느라고</u> 못 쉬어요. ·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늦게까지 사무실에 <u>있느라고</u> 선물을 못 샀어요.
경희대 교재	V-느라고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u>하느라고</u> 매일 잠을 못 자서 그래요. ·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u>하느라고</u> 방학 때도 바쁘게 지냅니다.
고려대 교재	-느라고	<p>① -느라고 is attached to a verb stem,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clause is not completed successfully due to the preceding clause.</p> <p>② Generally ‘A 하느라고 B를 안/못 했다’ form(it is used when someone is supposed to do two thing at the same time, but A was achieved, and B was not) or ‘A 하느라고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정신이 없다/ 늦다/ 잊어버리다’ is us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u>공부하느라고</u> 부모님께 전화도 한 번 못 드렸어요. · 결혼 <u>준비하느라고</u> 정신이 없던데요. · 다른 일을 <u>하느라고</u> 아직 못 했어요.

위 <표1>을 기반으로 한국어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느라고’의 기술 정보를 살펴보면, 우선 항목 제시는 모두 ‘-느라고’의 형태이다.

다음으로 ‘-느라고’의 설명에 대해 이화여대 교재와 서강대 교재, 고려대 교재에서 [이유]의 의미로 다루면서 후행절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대 교재에서는 [이유]나 [원인]으로 다루면서 주어 일치, 시상 제약, 결합 가능 동사 등의 문법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다. 그에 반해 경희대 교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 각 대학 교재의 용례를 보면, 5개 대학 교재 18개 용례 모두 [이유]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후행절에 부정 표현을 다루고 있는 용례는 12개나 되었다.

이상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느라고’의 설명과 용례를 보면, 그 의미와 용례는 주로 [이유]로 다루고 있으며, 후행절의 부정 표현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류와 문법서 등에서는 ‘-느라고’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2) 사전류에서의 ‘-느라고’

한국어 사전류와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는 ‘-느라고’의 기술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⁵⁾

5) 이 연구에서는 사전 의미 기술은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2009)의 『한국어대사전』을 활용하겠다. 그 이유는 이 두 사전의 경우 각각 언어 표준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되어 최근까지 내용 수정이 꾸준히 있어왔다는 점, 최근 말뭉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등이 의미 기술을 살피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어문법서 역시 국립국어원(200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백봉자(2009)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사전』, 이희자·이종희(2010)의 『한국어 어미·조사 사전』 등을 활용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표 2. '-느라고'의 사전 기술 정보

연결어미 '-느라고'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범주	어미
	의미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형태, 통사정보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한국어대사전』	범주	연결어미
	의미	1. 그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 것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뒤 절의 사실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 2. 그 행동을 이를 목적으로 뒤 절의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말 '기 위하여'의 뜻을 나타낸다.
	형태, 통사정보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범주	어미(연결)
	의미	1.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핑계나 이유를 대는 데 쓰인다. 2. 앞 문장이 뒤 문장에 대한 목적이 됨을 나타낸다.
	형태, 통사정보	1.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2. 뒤 문장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3. 과거의 '-았-'이나 미래의 '-겠-'과 함께 쓸 수 없다. 4. '-느라고'는 '-느라'로 줄여 쓸 수 있다.
이희자·이종희 (2010) 『한국어 어미·조사 사전』	범주	연결어미
	의미	1. 이유를 나타낸다. '~하는 일 때문에'의 뜻. 2. 목적을 나타낸다. '~기 위해'의 뜻. 3. '이유'를 나타내는 '-느라고' 절의 내용이 뒷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형태, 통사정보	1. 반침이 있든 없든 '-느라고'가 쓰인다. '-느라고'는 동사의 현재형 뒤에만 쓰인다. 2. 앞 절, 뒷 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3. 뒷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데, 문법서 내 문법 항목 기술이 다양한 용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느라고'의 의미 기술 정보를 살피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문법서들을 활용하겠다.

백봉자(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범주	연결어미
	의미	선행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과 노력이 후행절의 행위나 상태에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형태, 통사정보	1. 연결어미 -느라- 연결어미-고 2. 선행절의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적인 폭을 나타내는 '-느라'와 순차적 나열을 가리키는 '-고'가 결합해서 된 연결어미로서, 선행절을 후행절에 종속적으로 연결한다. - 동작동사 중에 시간을 요하는 동사하고만 결합한다. - 서술어에 명령형 '-하시오'와 청유형 '-하시디'는 쓰지 않는다. -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같아야 하고 유정물이어야 한다. 3. 선행절에 시상어미가 나타나지 않아도 후행절의 시제와 일치한다.

위 <표2>의 사전에 기술하고 있는 '-느라고'의 정보를 보면, 범주 정보의 경우 '어미', '연결어미' 등 구체적이거나 포괄적이냐는 표현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며, 의미 정보 기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유] 혹은 [원인]과 [목적] 등으로 분류해서 두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해 놓고 있다. 또한 형태·통사 정보는 '주어 일치', '명령형과 청유형의 제약', '과거 시제와 결합하지 못함'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한국어사전 및 문법서들의 기술은 제한된 예문을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 밖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의 예1)을 보겠다.

- 예1) ㄱ. 여러 대의 버스가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서 있었다.
 ㄴ. 비가 오느라고 허리가 그렇게 아팠던 모양이다.

위 예1)은 '-느라고'에 의해 연결된 문장인데, 앞서 '-느라고'의 사전 기

술 정보를 보면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예1ㄱ)의 경우에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모두 ‘버스’로 일치하지만, 예1ㄴ)의 경우에는 선행절은 ‘비’, 후행절은 ‘허리’가 각각 주어가 된다. 이처럼 ‘-느라고’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류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기술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한국어교재의 예문들을 보면 모두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되는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물론 언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에서 다룬다. 하지만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느라고’를 학습한 후에 좀 더 다양한 쓰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경우 사전류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특성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예2)를 보겠다.

예2) ㄱ. 청소를 하느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ㄴ. 친구들이 와서 술과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느라고 집안이 북적였다.

위 예2)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 찾기’에서 ‘-느라고’가 쓰인 용례들을 추출한 것이다. 예2ㄱ)과 예2ㄴ)은 각각 선행절의 ‘청소한 행위’와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한 행위’가, 후행절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과 ‘집안이 북적였다’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까닭이자 선행절 행위의 근본이 된 사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유] 혹은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⁶⁾

6) 윤평현(1989:114)에서는 ‘이유’와 ‘원인’은 다른 개념이며, ‘이유’가 ‘원인’에 함의되어야 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이유’와 ‘원인’은 개념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유’는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고,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그런데 앞서 한국어교재에서의 예문이나 한국어사전류에서는 ‘-느라고’가 [이유/원인]의 의미를 갖게 될 때에는 후행절이 부정적 결과나 부정적 영향이 온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으며, 예시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있다. 물론 예2ㄱ)은 후행절이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2ㄴ)의 경우 집안이 북적거리는 것이 부정적 결과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한국어교재나 사전류에서 다루고 있는 ‘-느라고’는 좀 더 다양한 용례를 기반으로 학습되어야 하며, 사전 기술에서는 각각의 의미에 따른 세밀한 기술이 학습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느라고’의 의미를 말뭉치 예문 분석을 통해 분류해 보고, 이 의미를 기반으로 ‘-느라고’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2. ‘-느라고’의 의미 관계 양상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찾기에서 추출한 ‘-느라고’의 용례에서 선·후행절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느라고’의 의미를 분류해 보겠다. 우선 다음의 예3)을 보겠다.

- 예3) ㄱ.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ㄴ.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하느라고 차임벨 소리를 못 들었어요.
 ㄷ. 산 밑의 땅을 밭으로 일구느라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ㄹ. 월드컵 결승전을 보느라고 잠을 안 잤다.

위 예3)은 말뭉치 용례들인데, 예3ㄱ)은 후행절의 고생 행위의 결론에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두 의미 차이가 상당히 미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이유/원인]처럼 한 의미 범주로 나타내겠다.

이른 근거를, 선행절의 음식 준비 행위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3ㄴ)의 차임벨 소리를 못 들은 것은 음악을 듣고 있는 행위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예3ㄱ)과 예3ㄴ)의 ‘-느라고’는 [이유/원인]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예3ㄷ)과 예3ㄹ)은 후행절의 행위인 곡괭이질과 잠을 안 잔 행위가 선행절의 ‘밭을 일구는 것’과 ‘월드컵 시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예3)의 ‘-느라고’ 의미인 [이유/원인]과 [목적]은 좀 더 세분화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예3ㄱ)과 예3ㄴ)을 보면, 예3ㄱ)의 경우 주체의 사실 행위에 대한 양상을 후행절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선행절에 나타내고 있으며, 예3ㄴ)은 동 시간대의 여러 행위 가운데 하지 못한 행위를 부정 형식으로 후행절에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선택된 행위를 근거로써 선행절에 나타내고 있다.

[목적]을 나타내는 예3ㄷ)과 예3ㄹ)을 보면, 예3ㄷ)은 후행절 주체의 의도적 행위가 선행절의 행위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3ㄹ)의 경우 후행절에서 주체의 의지에 의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부정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선행절의 어떤 행위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추출한 연결어미 ‘-느라고’의 용례는 총 941개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느라고’의 의미는 [이유/원인-사실적 행위(부정)]으로 총 388회(41.2%)였다. 그 다음으로 [이유/원인-사실적 행위(판단)]이 241회(25.6%), [목적-의도적 행위(부정)]이 187회(19.9%), [목적-의도적 행위(판단)]이 125회(13.3%) 등의 순이었다. 이상의 ‘-느라고’ 의미 관계 양상을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분석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느라고’의 의미 관계 양상 및 사용 빈도

연결어미	의미	후행절 의미 양상			빈도	
					횟수(회)	빈도(%)
‘-느라고’	이유/원인	사실적 행위	판단 형식	양상	241	25.6
			부정 형식	외부요인	388	41.2
	목적	의도적 행위	판단 형식	양상	125	13.3
			부정 형식	의지	187	19.9
합계					941	100

위 표3)에서처럼 ‘-느라고’는 크게 [이유/원인]과 [목적]으로 그 의미 관계를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의미에 따라 [이유/원인-사실적 행위(판단)], [이유/원인-사실적 행위(부정)], [목적-의도적 행위(판단)], [목적-의도적 행위(부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의미 양상과 말뭉치 예문의 빈도수를 참고해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를 [이유/원인]과 같은 특정 의미에 치우쳐 교육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미의 ‘-느라고’에 대해 교수·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세분화된 ‘-느라고’의 의미를 기반으로 그 특성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다.

Ⅲ. ‘-느라고’의 특성 및 기술 내용 제시

1. ‘-느라고’의 특성

1) ‘-느라고’의 선·후행절 의미 관계

연결어미 ‘-느라고’는 여러 [이유/원인]이나 [목적]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와는 의미 해석에서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우선 앞의 <표2>를 참고해 보면 ‘-느라고’로 연결된 두 절 중 후행절의 경우 [이유/원인] 의미에서는 41.2%가 부정 표현이 나타나고, [목적] 의미에서는 19.9%가 부정 표현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4)를 보겠다.

예4) 가. 진아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도통 안 먹는다.

나. 간부 회의 자료 복사하느라고 모니터링은 못 해.

예4)는 후행절에 부정 표현이 있는 예들인데, 예가)은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를 나타낸 것이고, 예4나)은 자료 복사를 해서 모니터링은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예4가)의 ‘다이어트’와 ‘안 먹는 행위’, 예4나)의 ‘복사’와 ‘모니터링을 못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면, 또다른 행위는 동일한 시간 선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게 된다. 즉, ‘-느라고’에 의해 연결된 예4)의 경우처럼 여러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나타날 경우 선택된 행위가 선행절에 의해 나타나면, 선행절의 행위를 하는 동안 선택되지 못한 다른 행위에 대해 후행절에서 부정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⁷⁾ 이때 후행절의 행위가 어떤 사실 행위의 부정 표현이면 [이유/원인]의 의미가 되고, 의지나 의도에 대한 부정 표현이면 [목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후행절에 부정 표현이 있어야만 ‘-느라고’가 동 시간대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5)를 보겠다.

7)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행위자는 복수의 행위 중에 하나의 행위를 선택해서 하게 된다. 이때 행위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행위와, 그로 인해 행위자에게 선택되지 못한 행위는 같은 시간선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이다. 이때 쓰이는 연결어미 ‘-느라고’는 하나의 행위를 할 때, 선택에 의해 할 수 없는 다른 행위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혹은 표현하기 위해 부정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예5) ㄱ. 18층 언니와 수다를 떠느라고 목까지 말랐다.

ㄴ. 하늘을 보면서 나의 별을 찾느라고 망원경을 열심히 응시했다.

위 예5ㄱ) 선행절의 ‘언니와 수다를 떠는 것’과 후행절의 ‘목이 마른 것’, 예5ㄴ) 선행절의 ‘별을 찾는 것’과 후행절의 ‘망원경을 응시한 행위’ 등은 후행절의 부정 표현이 없이도 동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동 시간대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느라고’는 선·후행절 사건이 발생한 행위의 시간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예6) ㄱ. 고장난 중형 구식활판기계를 수리하느라고 기계 밑에 기어들어갔다.

ㄴ. 찾아온 제자들과 점심을 먹느라고 식당에 늦게 들어갔다.

예6ㄱ)은 후행절의 기계 밑에 들어간 행위가 선행절의 구식활판기계를 수리하는 행위에 시간상으로 앞서는데, 이때 [선행절의 사건시<후행절의 사건시]가 되면 ‘-느라고’의 의미는 [목적]이 된다. 또한, [목적] 의미의 ‘-느라고’는 후행절 행위가 시간상 앞서면 선행절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6ㄴ)은 선행절의 제자들과 점심을 먹는 행위가 후행절의 식당에 늦게 들어간 행위보다 시간상 앞서는데, 이때는 [선행절의 사건시>후행절의 사건시]가 되며 그 의미는 [이유/원인]이 된다. 이와 함께 [이유/원인] 의미의 ‘-느라고’는 선행절 행위가 시간상 앞서면서 후행절 행위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느라고’는 사건시에 따른 선·후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2) ‘-느라고’의 문법적 특성

연결어미 ‘-느라고’의 문법 특성은 각 의미별로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여부, 문장 종결 관련 제약, 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제약, 서술어 결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느라고’의 가장 큰 특징은 선·후행절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특성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느냐의 여부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 예7) ㄱ.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느라고 바빴다.
 ㄴ. 연탄이 녹느라고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ㄷ. 좋은 물건을 만드느라고 애를 쓰신다.
 ㄹ. 식료품 비용을 아끼느라고 요리를 안 할 수도 있어.

위 예7ㄱ)과 예7ㄴ)은 ‘-느라고’가 [이유/원인]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고, 예7ㄷ)과 예7ㄹ)은 [목적]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유/원인]의 의미로 쓰인 예7ㄱ)과 예7ㄴ)에서 선행절의 주어는 각각 ‘그’와 ‘연탄’이며, 문장 상에서는 생략을 되어 있지만 후행절에서도 각각 ‘그’와 ‘연탄’이 주어가 된다. 즉,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목적]의 의미로 쓰인 예7ㄷ)과 예7ㄹ)에서는 선행절의 행위인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식료품 비용을 아끼는 것’의 행위 주어가 각각 생략되어 있는데, 이 때 생략된 행위 주어는 후행절의 ‘애를 쓰는 것’과 ‘요리를 안 하는 것’의 행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즉,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다.

이처럼 ‘-느라고’는 [이유/원인]이나 [목적] 등 어떤 의미로 쓰여도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겠다.

예8) ㄱ. 선영이가 밤새 오디션 노래 연습을 하느라고 애먼 식구들만 잠을 못 잤다.

ㄴ. 전 중대원들이 우물가에 일시에 모여 서로 먼저 세수하느라고 물바가지 전쟁이 벌어진다.

위 예8ㄱ)과 예8ㄴ)은 각각 [이유/원인]과 [목적]으로 ‘-느라고’가 쓰인 경우이다. 예8ㄱ)의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노래 연습을 한 ‘선영’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잠을 못 잔 ‘식구들’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8ㄴ)은 선행절의 주어가 세수하는 ‘중대원들’이고, 후행절의 주어는 ‘전쟁’으로 역시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⁸⁾

예8)의 용례를 보면, ‘-느라고’로 연결된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느라고’는 동 시간대의 어떤 주체 행위를 [이유/원인] 혹은 [목적] 등의 의미로 표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주로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예8ㄱ)에서 보면 선행절에서 선영이가 노래 연습을 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식구들이 잠을 자지 못한 행위가 나타난 것처럼 선행절 행위가 후행절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나, 예8ㄴ)에서 문장 표면상에 나타난 후행절의 주어는 ‘전쟁’이지만 이를 포함해 전쟁을 벌인 것은 결국 선행절 주어인 ‘전 중대원들’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후행절의 주어가 선행절 주어의 행위 상황 속에 포함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상당히 지엽적이지만 ‘-느라고’로 연결된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도 문장이

8) 주어 일치와 관련하여 안주호(2007:422-423)에서 진정란(2005:87)의 후행절 주어의 소유물이거나 선행절의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한 것을 비판하면서 [원인, 이유] 구문에서는 선행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지만 [동시], [의도, 목적]을 나타낼 경우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창덕(2014)에서는 [원인]으로 쓰이는 경우 동일 주어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느라고'로 연결된 선·후행절은 [이유/원인] 혹은 [목적] 모두 대체적으로 주어 일치하지만 선행절 주어 행위가 후행절에 영향을 주거나 선행절 주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후행절 주어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선행절 행위 상황과 관련한 후행절 주어의 포함 가능성에 따라 지엽적으로 주어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느라고'로 연결된 선·후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절대적인 특징이 아니다.

다음으로 문장 종결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다.

- 예9) ㄱ. 미연이가 그 일을 끝내느라고 정말 {고생했다./고생했나?/고생해
라.√/고생하자.√/고생했구나}
ㄴ. 면접 시험 준비하느라고 밤을 {샀다./샀나?/새라.√/새자.√/새는구나!}

예9ㄱ)과 예9ㄴ)은 각각 [목적]과 [이유/원인]으로 '-느라고'가 쓰인 경우인데, 둘 모두 명령형과 청유형의 종결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문이 된다. 이는 '-느라고'가 쓰인 선행절이 후행절 행위의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근거가 되거나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후행절 행위는 선행절 행위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연결선상에 놓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명령형이나,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은 아직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후행절에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명령형'과 '청유형'은 종결 방식에서 제약이 따른다.⁹⁾

9) 의문형 종결과 관련하여 진정란(2005:85)에서 의문사를 동반한 경우 비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안주호(2007:424-425)에서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미지칭의 부정대명사로 해석할지의 용인 정도에 따라 비문 여부 가 결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의문사와 부정대명사의 판단에 따라 '-

‘-느라고’와 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 예10) 가. 동생을 찾느라고 밤을 세웠다.
 나. 동생을 찾았느라고(√) 밤을 세웠다.
 다. 동생을 찾겠느라고(√) 밤을 세웠다.
 리. 동생을 찾더느라고(√) 밤을 세웠다.

예10)을 보면 ‘-느라고’는 ‘-았’이나 ‘-겠’, ‘-더’ 등과 같은 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에서 제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느라고’의 의미는 앞서 [이유/원인]과 [목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느라고’와 결합하는 선행절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 전체의 의미가 후행절의 [이유/원인] 혹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절이 [이유/원인] 혹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행위 자체가 후행절의 행위와 연관되어서 지속되거나 진행되어야 한다. 즉, 선행절의 행위가 이미 끝난 것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결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상 선어말 어미 ‘-았/었, -더-, -겠’ 등과는 결합하지 못한다.¹⁰⁾

‘-느라고’는 서술어로 쓰이는 품사 중 동사와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느라고’가 쓰인 문장의 비문 여부를 판단하고 쓸 것을 한국어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선행절에서는 의문사 결합과 관련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느라고’의 기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 10) ‘-느라고’는 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제약은 김명희(1980), 이숙(1985), 진정란(2005), 안주호(2007a), 김경화·김정남(2012), 이창덕(2014) 등에서 줄곧 논의되어 왔다. ‘-느라고’는 ‘-느-’의 속성에 따라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느-’와 ‘-느라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

- 예11) ㄱ. 차가 막히느라고(√) 학교에 지각을 했다.
 ㄴ. 길을 잃느라고(√) 집에 못 갔다.

예11 ㄱ)과 예11 ㄴ)은 각각 동사 ‘막히다’와 ‘잃다’가 결합해서 비문이 된 경우이다. 예11)처럼 ‘-느라고’에 동사가 결합한 경우일지라도 ‘막히다’나 ‘잃다’, ‘놓치다’, ‘걸리다’, ‘들다’ 등 상적 속성이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가 아닌 동사의 경우에는 ‘-느라고’와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서술어로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쓰인 경우를 보겠다.

- 예12) ㄱ. 영화가 바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ㄴ. 방이 더럽느라고(√) 정리를 한다.

위 예12 ㄱ)과 예12 ㄴ)은 ‘-느라고’에 형용사 ‘바쁘다’와 ‘더럽다’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 역시 비문이 된다.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상태성]의 상적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 혹은 지속의 의미가 있는 ‘-느라고’와의 결합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느라고’의 기술 내용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느라고’의 기술 내용

앞서 사전류와 문법서의 기술, 말뭉치 예문 등을 기반으로 ‘-느라고’의 의미를 [이유/원인]과 [목적]으로 분류하고, ‘-느라고’의 해석적 특성과 함께 주어의 일치, 문장 종결 형식, 시제 선어말 어미, 부정문 제약 등과 관련한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느라고’의 기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결어미 ‘-느라고’의 기술 내용

표제어	‘-느라고’			
결합 정보	1. Vst +-느라고 ____ 2. 동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 ‘-으시’ 뒤에 붙는다.			
공통 용법	① 주로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된 두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때 선·후행절의 행위 시간대가 겹쳐 다른 한쪽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후행절에 주로 부정 표현이 나타난다. ② 선·후행절의 주어 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선행절 주어 행위가 후행절에 영향을 주거나 선행절 주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후행절 주어 행위가 나타는 경우, 선행절 행위 상황과 관련한 후행절 주어의 포함가능성에 따라 주어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함. ③ 시상 선어말 어미 ‘-았/었, -더, -겠’ 등 결합에서 제약이 있다. ④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 종결 방식에서 제약이 있다. ⑤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고, 동사 중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범주 정보	의미	의미별 특징	선·후행절 사건시의 특징	
어미 - 비종결 어미	이유/ 원인 -사실적 행위	판단 형식 (양상) 부정 형식 (외부요인)	의미 후행절의 사실적 행위가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선행절에서 제시하는 경우. 예시) 동생을 기다리느라고 밥을 못 먹었다. 의미 후행절에서 ‘못’ 부정 표현이 주로 나타난다. 용례) 예시) 천국의 계단을 보느라고 방송 듣는 걸 깜빡했어.	선행절 ≥ 후행절
	목적 -의도적 행위	판단 형식 (양상) 부정 형식 (의지)	의미 후행절의 의도적 행위가 이루어려고 하는 일이나 욕망, 의지 등을 선행절에서 제시하는 경우. 예시) 교회에 가느라고 택시를 잡아 탔다. 의미 후행절에서 ‘안’ 부정 표현이 주로 나타난다. 예시) 동생과 놀아주느라고 도서관에는 안 갔어요	선행절 ≤ 후행절

위 기술 내용은 표제어를 ‘-느라고’로 표상하고, ‘-느라고’가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한다는 결합 정보를 간단한 설명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느라고’의 공통 특징인 ‘동일 시간대 일어난 복수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 ‘선·후행절 주어 일치 여부’, ‘시상 선어말 어미 결합 제약’, ‘문

장 종결 방식 제약, ‘서술어 결합 제약’ 등을 공통용법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서술어 결합 제약과 관련하여 동사 중 ‘-느라고’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 목록도 함께 나타내어 교육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용법을 제시한 후에는 ‘-느라고’의 범주 정보를 기준으로 의미상 두 갈래인 [이유/원인]과 [목적]으로 구분하여 각 의미별 특징 및 용례를 세분화한 후 제시해서, 용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느라고’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느라고’는 사건시에 따라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그간 ‘-느라고’를 포괄적이면서 지엽적으로 나타냈던 기존의 기술들을 보완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느라고’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교재와 한국어사전류, 문법서 등 기존의 기술 내용과 용례들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느라고’의 해석적 특성과 문법적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기술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한국어교재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느라고’는 주로 [이유]를 갖고 후행절에 부정 표현이 온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육되었다. 하지만 이는 언어 요소를 학습한 후 그 요소를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다양한 의미의 세분화된 특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에 기술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어학습자들이 언어 학습 후 좀 더 폭넓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추후 논의를 통해 교육에서의 학습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느라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은 것이나 좀 더 다양한 용례에서의 문법 제약 검증, 교육에서의 실효성 검증 등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한국어교재 및 사전류)

- 경희대 한국어교육연구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1』, (주)한글파크, 201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3』, (주)교보문고, 2010.
 구재희·현진희 외 3명, 『이화 한국어3-2』, 이화여대 출판부, 20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_____,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백봉자,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하우, 2006.
 서강대 한국어 교육원, 『서강 한국어 3B』, 서강대 국제문화 교육원 출판부, 2012.
 서울대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3A』, (주)투판즈, 2015.
 이희자·이중희,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11.

2. 논문 및 단행본

- 김경화·김정남, 『한국어 이유 표현 ‘-느라고’와 ‘-는 바람에’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3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2, pp.1-23.
 김미영·구정영,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와 제약에 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2012(7),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2, pp.39-42.
 김명희, 『연결어 ‘-느라고’의 통사·의미상의 제약(1)』, 『이화어문논집』3,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0, pp.197-203.
 김순저, 『연결어미 “느라고”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2014(1),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4, pp.31-37.

- 박진호, 「시제, 상, 태」, 『국어학』60, 국어학회, 2011, pp.289-322.
- 백낙천, 「접속어미 '-느라고'와 '-으려고'에 대하여」, 『국제언어문학』260, 국제언어문학회, 2012, pp.203-222.
- 안주호, 「現代國語 連結語尾 {-느라고}의 特性」, 『語文研究』53, 어문연구학회, 2007a, pp.415-433.
- _____,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62, 한국언어문학회, 2007b, pp.97-121.
- 윤평현, 「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금희, 「'-느라고, -느라면, -느라니까'의 통사·의미적 특징」, 『반교어문연구』21권, 반교어문학회, 2006, pp.59-85.
- 이래호, 「한국어 교재에서 제약 중심의 연결어미 기술의 방향과 그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3, 한국중원언어학회, 2014, pp.201-226.
- 이숙,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통사적 분석」, 『말』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5, pp.125-145.
- 이영숙, 「연결어미 {-느라고}의 선택 제한」, 『제효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1989.
- 이창덕, 「국어 연결어미 '-느라고'의 기능과 용법」, 『문법교육』22, 한국문법교육학회, 2014, pp.91-112.
- 이키하라 고이치, 「{-느라고}에 대하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진가리,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와 문법 제약」, 『어문론총』5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pp.133-164.
- 진정란, 「유의표현 '-느라고, -는 바람에, -거든'의 교육문법 정보」, 『언어와문화』1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5, pp.179-200.

3.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on Methods Using the
Korean Conjunctive Ending ‘-neulago’
-Based on Korean Textbook and Dictionary Description-

Bak, Jong-ho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escriptive model for effective learning aimed at conjunctive endings, “-neulago”, from among grammar items propos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many studies on the description of grammar items shown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grammar books, and dictionaries that are used by Korean language learners because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learn efficiently education. This study summarized descriptions in exist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aimed at conjunctive endings, “-neulago” and the study discussed the Segmentation of a semantic and grammatical limitations for conjunctive endings, “-neulago”. 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descriptive model with which learners may learn efficiently conjunctive endings, “-neulago”, by integrating all relevant information to the above discussed conjunctive endings, “-neulago”.

Key Word : Korean education, Connective ending ‘-neulago’, Grammatical Dictionary, Grammatical restrictions, Dictionary Description

박종호

소속 :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육전담 조교수

전자우편 : bwihan1726@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